

## 임나일본부설 전파하는 국립중앙박물관 가야전시 비판 학술대회 및 국민대토론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본성'이란 이름의 가야전시회가 진행 중입니다. 유물은 훌륭하지만 전시회의 설명, 지도, 연표는 조선총독부에서 작성한 것처럼 임나일본부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369년 야마토왜가 가야를 점령하고 임나일본부를 설치했다는 《일본서기》의 조작된 내용이 '서기'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이를 부산에 이어 일본까지 가서 전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매국적 행위가 국세로 버젓이 자행되는데도 이를 감독하고 시정해야 할 관계기관들은 모두 꿀 먹은 벙어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국민들이 학술대회로, 국민대토론회로 일어섭니다.



(좌)사이토바루 고분 박물관 철모, (우)고령 지산동 가야 철모  
-사이토바루 유적(일본 왕실 뿌리)은 가야가 건너가서 세운 정치 세력

일시 : 2020년 2월 25일 (화) 14:00~18:00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20층) / 지하철 시청역 4번 출구 도보 2분

1부 : 학술대회 "재상륙한 임나일본부설 비판" (14:00~15:40)

2부 : 국민대토론회 "황국사관, 어떻게 해체시켜야 하나" (16:00~18:00)

미래로 가는 바른 역사협의회 / 순국선열 유족회 / 가야불교연구회 /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사업회 / 석주 이상룡 선생 기념사업회 / 김해 허씨 대종회 등 200여개 학술, 역사 사회단체 참여